

(주)이머시브임팩트 회사소개 자료

iMMERSIVE IMPACT



BRING HISTORY TO LIFE

STORYTELLING AND IMMERSIVE
EXPERIENCE DESIGN FOR HISTORIC
SITES AND CULTURAL INSTITU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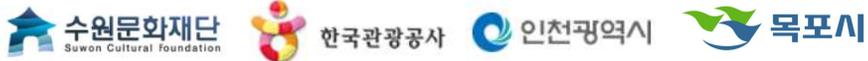


(주)이머시브임팩트 소개

역사·문화 특화 VR/AR 전문 기업

- 역사·문화 분야 특화 “스토리텔링” VR/AR 전문기업
- 단순한 CG 기반 콘텐츠가 아닌, **실사 영화촬영 기법을 접목하여** 콘텐츠의 퀄리티와 사용자의 몰입감을 극대화한 것이 차별점
- 제작된 AR/VR 콘텐츠를 스마트폰, VR 헤드셋, PC 등 다양한 하드웨어에서 구동 가능
- 해당 콘텐츠는 자연스럽게 관광 산업과 연계성이 높음
→ **스마트 관광 관련 전문성 보유**
- **메타버스 플랫폼**(다수의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같은 가상공간에 모여 실시간 협업 진행) 으로서 서비스 가능

대한민국 프로젝트 사례



- UNESCO 수원화성 - VR 스토리 구축 (1차: 2020, 2차: 2021)
- 대한민국 1호 스마트관광도시 구축 (한국관광공사/인천광역시) - AR/VR 부문 수행 (2021)
-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AR/VR 구축 (2021)

UN WTO 에서도 인정받은 스마트관광 전문성

2019 UNWTO Global Summit on Urban Tourism (Nur-Sultan, Kazakhstan)



- UN World Tourism Organization(UN세계관광기구)은 오유석 대표를 스마트 관광 전문가 연사로 초청
- VR/AR 을 이용하여 Smart Tourism을 구축한 사례를 발표

인천 스마트 관광도시 AR/VR 성공적 구축 레퍼런스 보유

2020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 사업

- 스마트관광 5대 요소 구축
- 총 사업비 70억원
 -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 35억원
 - 지방자치단체 : 35억원 매칭

<선정 과정>

- 2020년 2월 : 광역지자체 공문 발송 및 사업 공모 개시
- 2020년 6월 : 총 21개 지자체 컨소시엄 지원함
- 서면 및 발표 평가후 Top3 지자체 컨소시엄 선정 (인천, 수원 속초)
- 2020년 6월 - 8월 : Top 3 지자체 실증 실시
- 2020년 9월 : 인천시 컨소시엄 최종 선정
- 2020년 9월 - 2020년 4월 : 스마트관광도시 구축 실시

스마트 편의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플랫폼

스마트 경험 (AR/VR)

스마트관광 5대 요소(스마트 경험)

▶ 스마트 경험

▶ AR지도, AR셀카, VR드라마 등을 통해 과거의 한 순간을 직접 경험하고 온 듯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항장 곳곳에서 즐길 수 있다.



인천 개항장 야행, 박물관 15개, 우리나라 최초 최고 역사

+ 롤플레이팅 스마트 콘텐츠 및 19세기 경험 제공 [제류포 타워즈]

= 스마트한 경험

(주)이머시브임팩트

인천관광공사의 AR/VR부문 컨소시엄 파트너:
스마트 경험(AR/VR) 부문 총괄 진행
(콘텐츠 프로덕션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

3D AR MAP - 현장 방문 전/후에 모두 사용 가능

인천 스마트관광도시 사례



근대 목포 3D AR 지도
19세기말-20세기초 목포 개항
당시 모습을 3D AR 지도로 체험

인천 방문전 사용시:
인천 개항장 지역의 모습 및 미리보기 경험



- 자주적 개항장 목포의 역사 개괄 AR 경험:
3D 지도 위의 핀을 클릭하면 각 지역과 관련된 개항장 인천의 스토리를 AR로 경험할 수 있음

인천 개항장 지역에서 사용시:
방문전 모드와는 다른 현장 전용 콘텐츠 체험



- 방문중 전용 AR 콘텐츠 패키지 제공:
AR/VR 콘텐츠 풀버전 및 현장 미션형 AR 콘텐츠를 통해 사용자들의 인천 실제 방문을 유도

3D AR MAP - 해당 지역 방문 전 사용 예시

인천 스마트관광도시 사례



멸실되어 현재 볼 수 없는
역사적 건물을 3D AR로 체험

3D AR 추천 경로

3D AR MAP
(19세기 개항장 제물포 모습)

주요 유적지 관련 미리보기

현장형 XR 콘텐츠 사례 - VR 무비

과거의 사건을 2분 남짓의 “360 VR 무비”로 구현 (사용자가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듯한 경험 제공)

- 실사 영화촬영 기법을 적용하여 스토리텔링 콘텐츠의 퀄리티 및 사용자 몰입감 극대화



인천 스마트관광도시 사례 :
20세기 초 제물포구락부의 모습 스크린 캡처
(국제 외교의 중심 도시 인천)



인천 스마트관광도시 사례 :
20세기 초 제물포 항구의 모습 스크린 캡처
(한국식 짜장면의 탄생 배경)

현장형 XR 콘텐츠 사례 - AR 도슨트

역사적 인물이 "AR 고스트" 형태로 나타나서 자신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스토리텔링으로 전달

▶ AR 고스트 구현 방식 (개항장 인천 대불호텔 전시관 실제 구축 및 구동 사례)



AR 고스트 구동 장소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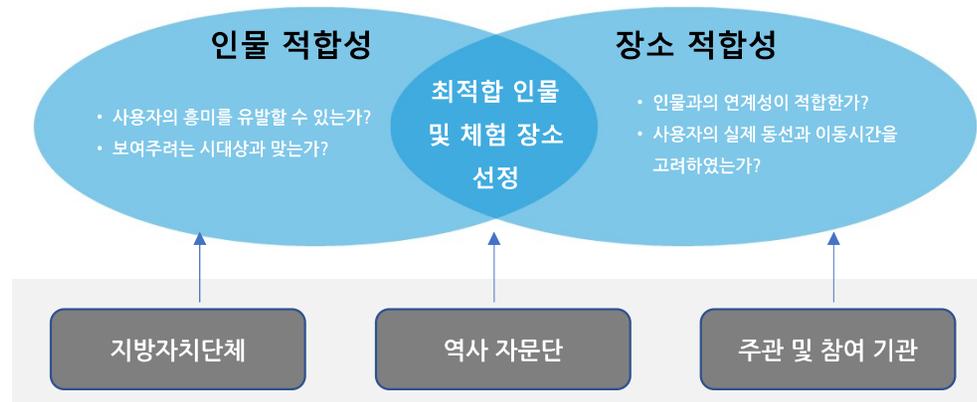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AR 고스트 구동



AR 고스트가 해당 장소에서 스토리텔링 전달

▶ AR 고스트 인물 선정 및 체험 장소 선정 기준 : 역사성과 대중성을 모두 고려



현장형 XR 콘텐츠 사례 - 현장 미션형 AR 퀴즈 게임

- 사업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용자들이 미션 투어 가능
- 미션 완료시 소정의 혜택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참여율 증진 가능

▶ 현장 미션형 AR 게임 구현 모습 (인천 스마트관광도시 사례)



미션장소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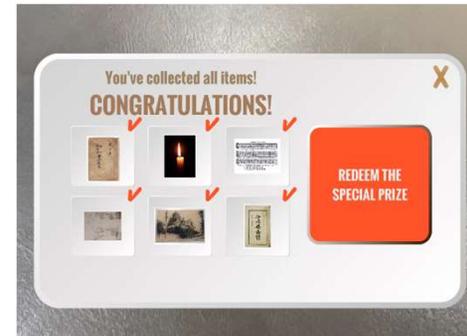
해당 AR 고스트가 힌트 전달



해당 장소와 관련된 퀴즈를 현장형 AR 형태로 진행



힌트에 맞추어 퀴즈 해결시 관련 아이템 획득



모든 미션 장소에서 AR 퀴즈를 해결하면 미션 완료!

미션 완료 혜택 예시:
박물관 입장권, 기념품 교환권 등

현장형 XR 콘텐츠 사례 - AR 오브젝트

- 현장 미션 게임 중 일부는 AR 오브젝트로 구현 가능: 현장의 실물을 AR 오브젝트로 변형시켜 사용자에게 힌트를 전달

AR 오브젝트 UI/UX 구현 모습 (근대 목포 AR 시간여행 사례)



미션 장소로 도착



미션: 오브젝트 증강 대상(오브젝트) 찾기



증강 대상(오브젝트)을 찾아 스캔하면 자동 인식



실제 사물(오브젝트)이 3D AR로 구식 TV로 변환되며, 그 TV에서 김시스터즈 관련 영상 재생

현장형 XR 콘텐츠 사례 - AR 파노라마

지정 장소에서 AR을 통해 과거 당시의 전경을 현재의 모습과 비교하며 둘러볼 수 있음



인천 스마트관광도시 사례 : 자유공원 전망대에서
각각 다른 시기의 모습을 AR로 비교하며 체험할 수 있음



1883
인천 개항 당시



1900
도시 개발 중 인천



1918
축항갑문 완성 당시

실제 AR/VR 사용 장면



인천 스마트관광도시 사례



근대 목포 AR 여행 사례

스마트관광 최적합 플랫폼 - 인천 스마트관광도시 언론 보도

朝鮮日報

타임머신 대신 스마트폰 들고 떠났다... 19세기 '이방인들의 아지트' 제물포 항구로

[아무튼, 주말]
아는 도시, 뜻밖의 풍경
인천 개항장 시간여행

박근희 기자

입력 2021.09.11 03:00

이인화의 소설 '2061년'은 주인공 '재익'을 비롯한 2061년의 사람들이 1896년 2월 11일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조선의 제물포(인천항)로 '시간 탐사'를 떠나면서 시작된다. 소설 속 제물포는 가공한 이야기 속 배경이지만 당시 개항장이었던 제물포 일대를 상상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과거로 시간 탐사를 떠난 주인공처럼 2021년에서 근대의 제물포로 떠날 수 있는 여행법이 등장했다. 지난 7월 30일 서비스를 개시한 '인천시 스마트투어'다. 스마트 기기에서 '인천e지'(AR) 앱을 켜고 지금의 개항장(인천시 중구) 일대를 돌며 제물포의 옛 모습과 역사 이야기를 AR(Augmented Reality·증강 현실)과 VR(Virtual Reality·가상 현실)로 즐기는 여행이다. 박물관과 전시관에선 스마트 기기 화면에 과거 실존했던 역사 속 인물이 등장하고, 현재의 풍경에 스마트 기기를 대면 130여 년 전 풍경이 화면에 떠오른다. 새로운 것 없어 보였던 도시가 새롭게 느껴지는 순간! 타임머신 대신 스마트폰 하나 들고 떠났다. '19세기 제물포'가 남아있는 인천 개항장으로.



개항기 인천에 거주하던 외국인들의 사교장으로 지어져 현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인문학 강연과 전시 등이 이어지고 있는 제물포 구락부 내부. 스마트기기를 통해 19세기 제물포 구락부의 풍경을 들여다볼 수 있다. / 한준호 영상미디어 기자

◇증강 현실로 만나는 제물포 구락부

이제 19세기 제물포를 증강 현실로 체험할 차례. 개항장 중심에 있는 **청·일 조계지 경계 계단**은 인천의 근현대사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다. 계단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왼쪽 청나라 구역과 오른쪽 일본 구역의 건축 양식이 확연히 다른 것이 특색이다. 옛 모습이 궁금해 AR·VR 체험존에서 앱을 활성화했다. 폰을 들고 주변을 '스캔' 하니



스마트기기의 앱을 활용해 'AR(증강 현실)' 'VR(가상 현실)'로 즐길 수 있는 '개항장'과 1960-80년대 감성을 즐길 수 있는 '개항로'에 다녀왔다. 가는 곳마다 근현대 이야기와 추억이 소환됐다. / 그래픽=백형선



제물포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VR 김구 선생' / 인천e지

이 밖에 누들플랫폼에서는 백범 김구가 인천과의 인연에 대해 얘기하고, **인천아트플랫폼**에선 미국인 선교사 아펜 젤러가, **중구형**에선 고종에게 헤이그 특사 파견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학자 험버트가, 개항 당시 각국의 경계선 역할을 했던 **각국 조계지 계단**에선 러시아 건축 기술자 사바틴이 고스트 도슨트로 등장해 해설을 돕는다.